



HOME 전북 교육/학교 더블

군산대,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개최

송동호 기자

승인 2018.10.29 10:59



[KNS뉴스통신=송동호 기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군산대학교 황룡문화홀에서 “제 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고,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

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은 후성유전체 분야로 서울대학교 허진희 교수,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바오 리우(Bao Liu) 교수, 일본 도쿄대학교 히로시 쿠도(Hiroshi Kudoh) 교수가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가축유전체 분야로 건국대학교 김재범 교수, 중국 그랜드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소(Grand Life Science and Technology) 슈탕 핑(Shutang Feng)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토시히로 오카무라(Toshihiro Okamura) 박사가 강연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생물정보 분야로 경상대학교 강양제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히로아키 사카이(Hiroaki Sakai) 박사가 강연하고, 마지막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중국 국립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시아오우 왕(Xiaowu Wang)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선 박사, 카주사 DNA 연구소 사치코 이소베(Sachiko Isobe) 박사가 강연했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동호 기자 ksbgsong@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군산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개최

(입력) 2018-10-29 16:37

(태그) #군산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25~26일 이틀 동안 군산대 황룡문화홀에서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고,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군산대 곽병선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은 후성유전체 분야로 서울대 허진희 교수, 중국 동북사범대 바오 리우(Bao Liu) 교수, 일본 도쿄대 히로시 쿠도(Hiroshi Kudoh) 교수가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가축유전체 분야로 건국대학교 김재범 교수, 중국 그랜드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소 (Grand Life Science and Technology) 슈탕 펑(Shutang Feng)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 (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토시히로 오카무라(Toshihiro Okamura) 박사가 했다.

세 번째 세션은 생물정보 분야로 경상대학교 강양제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히로아키 사카이 (Hiroaki Sakai) 박사가 강연했다.

마지막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중국 국립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시아오우 왕(Xiaowu Wang)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선 박사, 카주사 DNA 연구소 사치코 이소베(Sachiko Isobe) 박사가 했다.

군산대 최동수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군산대, 제 4회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개최

강기운 등록 :2018-10-29 12:51:56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군산대학교 황룡문화홀에서 “제 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고,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은 후성유전체 분야로 서울대학교 허진희 교수,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바오 리우(Bao Liu) 교수, 일본 도쿄대학교 히로시 쿠도(Hiroshi Kudoh) 교수가 강연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가축유전체 분야로 건국대학교 김재범 교수, 중국 그랜드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소(Grand Life Science and Technology) 슈탕 펑(Shutang Feng)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토시히로 오카무라(Toshihiro Okamura) 박사가 강연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생물정보 분야로 경상대학교 강양제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히로아키 사카이(Hiroaki Sakai) 박사가 강연하고, 마지막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중국 국립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시아오우 왕(Xiaowu Wang)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선 박사, 카주사 DNA 연구소 사치코 이소베(Sachiko Isobe) 박사가 강연하였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Copyright NewsWa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홈 > 뉴스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뉴스플러스

군산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열어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 주제로 열려

2018년 10월 29일 (월) 10:11:43

오혜민 기자 ✉ ohm@dhnews.co.kr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군산대 황룡문화홀에서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하나로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됐고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군산대 곽병선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은 후성유전체 분야로 서울대 허진희 교수, 중국 동북사범대 바오 리우(Bao Liu) 교수, 일본 도쿄대 히로시 쿠도(Hiroshi Kudoh) 교수가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가축유전체 분야로 건국대 김재범 교수, 중국 그랜드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소(Grand Life Science and Technology) 슈탕 펑(Shutang Feng)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토시히로 오카무라(Toshihiro Okamura) 박사가 강연했다.

세 번째 세션은 생물정보 분야로 경상대 강양제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히로아키 사카이(Hiroaki Sakai) 박사가, 마지막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중국 국립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시아오우 왕(Xiaowu Wang)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선 박사, 카주사 DNA 연구소 사치코 이소베(Sachiko Isobe) 박사가 강연했다.

군산대 최동수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HOME 대입 대학뉴스

군산대,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

김하연 기자

승인 2018.10.29 10:28

호수 0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군산대는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군산대학교 황룡문화홀에서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되었고,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군산대학교 객병선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후성유전체 분야로 서울대학교 허진회 교수,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바오 리우(Bao Liu) 교수, 일본 도쿄대학교 히로시 쿠도(Hiroshi Kudoh) 교수가 강연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가축유전체 분야로 건국대학교 김재범 교수, 중국 그랜드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소 슈탕 핑(Shutang Feng)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 토시히로 오카무라(Toshihiro Okamura) 박사가 강연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생물정보 분야로 경상대학교 강양제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 박사,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 히로아키 사카이(Hiroaki Sakai) 박사가 강연하고, 마지막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중국 국립농업과학원 시아오우 왕(Xiaowu Wang)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선 박사, 카주사 DNA 연구소 사치코 이소베(Sachiko Isobe) 박사가 강연하였다.

군산대학교 최동수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동아시아포럼 /사진=군산대 제공

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군산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개최

윤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29 15:23

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최동수)가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29일 군산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25일과 26일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명, 일본 전문가 4명 및 국내 전문가 5명이 초청돼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최동수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장 기자

[HOME \(/\)](#) > [지역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0\)](#) > [군산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3\)](#)

"국가 간 농생명 유전체 분야 협력체계 구축"

👤 김기현 | 🕒 승인 2018.10.29 14:49

군산대 농생명유전체포럼 개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최동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일환으로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이날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됐으며,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최동수 센터장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기자

 인쇄

군산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개최

조영은 기자 | 승인 2018.10.29 14:40



25~26일 개최한 2018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 전문가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군산대(총장 곽병선)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가 25일~26일 군산대 황룡문화홀에서 '제4회 동아시아 농생명유전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교류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유전체와 후성유전체를 토대로 한 차세대 농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전문가 3인, 일본 전문가 4인 및 국내 전문가 5인이 초청됐으며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 국내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진 및 학생 약 70여 명 참석했다.

포럼은 곽병선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은 후성유전체 분야로 △허진희 서울대 교수 △바오 리우(Bao Liu) 중국 동북사범대 교수 △히로시 쿠도(Hiroshi Kudoh) 일본 도쿄대 교수가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가축유전체 분야로 △김재범 건국대 교수 △슈탕 펑(Shutang Feng) 중국 그랜드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소 박사 △토시히로 오카무라(Toshihiro Okamura)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 박사가 강연했다.

세 번째 세션은 생물정보 분야로 △강양제 경상대 교수 △김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히로아키 사카이(Hiroaki Sakai)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소 박사가 강연하고, 마지막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시아오우 왕(Xiaowu Wang) 중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김정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사치코 이소베(Sachiko Isobe) 카주사 DNA 연구소 박사가 강연했다.

최동수 군산대 교수는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유전체 분야의 국가 간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은 기자